

## 헤센 주 총리 내외 주최 만찬 답사

존경하는 롤란트 코흐 총리 각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유서 깊은 비브리히 성에서의 만찬은 오래도록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헤센은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유럽의 금융중심입니다. 자동차·화학 등 헤센의 주력산업은 독일을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훌륭한 문화예술 전통도 현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카셀의 도쿠멘타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헤센의 발전을 이끌고 계신 총리 각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독일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비슷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언제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헤센은 이러한 양국의 우호협력에 든든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진출

한 대다수 우리 기업이 헤센에 자리잡고 있고, 최근에도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지역본부들을 이곳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총리께서도 2001년에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증가하는 양국 교역규모에 비춰 볼 때 헤센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헤센이 낳은 대문호 괴테는 “꿈이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함께 꾸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기에 앞으로도 두 나라의 우정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총리 내외분의 건강과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